

# 온라인 플랫폼 통한 해외시장 개척

### 전북도,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흐름에 따라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올해 인도·인도네시아 등 중심으로 화장품·농수산물 등에 집중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흐름에 맞춰, 수출길을 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도는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TV홈쇼핑,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마케팅 등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포스트차이나 국가로 대표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K-드라마, K-팝 등 한류열풍으로 인기가 높은 화장품과 농수산물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각 국가별 쇼핑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 TV홈쇼핑과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위한 해외 규격인증 획득부터 물류운송/통관, 방송영상 및 플랫폼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촉진 프로모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 쿠팡 등 해외 유명 쇼핑몰에 관심 있는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입점절차와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서류, 시장조사 방법, 배송 관련사항

등을 교육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된 수출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은 전북도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에 3월중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31)에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백 소장은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해왔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7시다. 사진은 1992년, 시위 도중 백기완의 구타에 숨진 명진대생 강경대(1972-1991) 열사 1주기 추모식. (사진=민족사진연구회 제공)

## 與, '선별적' 4차 지원금 대폭 확대 | 이낙연 "이전 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 연매출 기준 완화 '늘게' 영업제한 추가 지원 '두텁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우선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기초를 더 넓고 더 두텁게 마련한 민주당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예고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최소화와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이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폐쇄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피해가 집중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비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선별적 지급이 이뤄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베풀고 있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 이 확실히되며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15조원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은 바람 끌

어 물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신속하고도 강력한 지원"이라며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규모도 2·3차 때처럼 위급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전체 보상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 방식에서도 정책제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에서는 제외됐던 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늘게' 지원 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대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회견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보고 내용과 관련해 "과거에는 매출액 기준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예측을 못하고 참았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도 있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 기준 상황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민주화운동의 '큰 별' 백기완 선생 영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투병 끝에 15일 영면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 소장은 이날 오전 입원 중 별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투병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골군 동부리에서 아버지 백홍렬과 어머니 홍익재 사이에서 4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인 백태주는 장련면의 유지로 있으면서 1922년 장연농민공회 창립 당시 회장으로 재임했다.

백태주는 3·1운동 당시에도 수천장의 태극기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민족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백 소장은 백범 김구 선생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김구 선생은 1898년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 수감됐다가 탈옥했는데, 당시 황해도 은골 땅을 몰래 지날 때 조부 백태주가 김구 선생을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한다.

해방 이후 부친 백홍렬이 백 소장을 서울로 데리고 가 김구 선생을 만나게 했고, 그때부터 백 소장은 김구 선생을 따르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백 소장은 재야 운동가로 1950년 대부터 농민과 빈민운동 등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적극 참여했다. 1960년대에는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백 소장은 1967년 통일문제연구소의 모태인 '백범사상연구소'를 세웠으며, 3선 개헌 반대와 유신

철폐 등 활동에도 참여했다.

1974년에는 유신헌법 철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면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옥살이를 했고,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소장은 1979년에는 'YMCA 위장결혼 사건', 1986년에는 '부친 권인숙양 상고문 폭로 대화'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지만 김영삼·김대중의 후보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이후 5년 뒤인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 민중후보로 다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대선에서 낙선한 백 소장은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통일운동과 노동운동 등을 지원했다.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백 소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가사의 원작으로 알려진 시 '뫼비우스'를 짓기도 했다.

백 소장은 창작활동에도 힘을 썼는데, '장산꽃에 이야기'와 '부실이의 엄마성' 등 소설과 수필집을 펴냈다. 그는 열렬한 국어순화론자로,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되도록 순우리말을 썼다고 한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씨와 딸 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미담·현담, 아들 일씨가 있다. 백 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뉴스

###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소방서 격려 방문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설 명절 기간중 특별경계 근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정읍소방서 신대인119안전센터, 13일 오후 2시경 하북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정

읍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설 명절기간에도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성기 서장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원들을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 민주 김성주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친구 입양아동 확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자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산단 공장 가동 본격화

### 개발청, 임시 건축물로 사용하던 산단 내 12곳 사용 승인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토지가 준공되지 않아 임시 건축물로 사용하던 새만금산단 내 공장 12곳을 정식으로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단 내 건축 허가한 공장 총 28곳 중, 20곳이 사용 승인돼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8곳 가운데 6곳은 올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허가 2건은 동결기 이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9건)부터 입주기업이 크게 늘고 있고, 올 초에만 벌써 3건을 승인함에 따라, 산단이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산단 내 입주한 기업들은 주로 미래 전략사업인 전기차,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

지 구축을 목표로 한 새만금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이 공장등록을 마치고 약 950명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신규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산단 내 투입된 공장 건축공사비(설계, 감리비 포함)가 약 8,000억 원으로, 전북지역의 건축사와 시공사가 참여하고, 지역의 공사인력과 자재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김세용 정보민원담당관은 "투자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고객민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최영규 전북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1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리 동산초등학교에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근절 등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